



준PO 내일 돌입 ... 호랑이 군단 출사표

“4위 팀 우승 가을 드라마 쓰겠다”

“한기주와 이범호가 투·타 전력의 변수가 될 것이다. 4위 팀 우승 신화를 쓰겠다.”

8일 문학구장에서 열리는 KIA 타이거즈와 SK 와이번스의 준플레이오프를 시작으로 2011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의 막이 오른다. 결전을 앞둔 KIA 조범현 감독은 우승을 목표로 또 다른 가을 드라마를 쓰겠다고 밝혔다.

조 감독은 “부상약재 속에서도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4위를 할 수 있었다”며 “단기전에서는 분위기가 중요한 만큼 선수단 분위기를 잘 이끌어 우승까지 노리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전력 구상의 마지막 퍼즐은 한기주와 이범호가 될 전망이다.

조 감독은 “한기주가 앞선 등판에서 손가락

KIA 조범현 감독

이범호·한기주 전력 포인트

수비보다 공격 야구로 승부

에 물집이 잡혔지만 큰 이상은 아니고 최근 구위도 좋기 때문에 마무리와 중간에서 폭넓게 활용할 것이다”며 “이범호의 타격 컨디션에 따라서 타선의 큰 틀이 달라질 것이다”고 밝혔다.

이범호가 수비를 소화하지 못하면서 베스트

라인업을 꾸리지 못할 경우 수비보다는 공격적인 면을 강조한 라인업으로 SK 마운드를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지완은 조 감독이 뽑는 타선의 조커다. 조 감독은 “타자들 중에서 나지완의 움직임이 가장 좋다. 나지완의 방망이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민과 김광현의 맞대결이 예상되는 1차전 승부는 초반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감독은 “1차전은 투수전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광현의 컨디션이 좋지만 부상으로 쉬었던만큼 투구수가 관건이 될 것이다. 초반부터 끈질긴 승부로 기선을 제압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종범

이범호

최희섭

김상현

윤석민

한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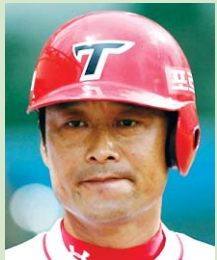
이용규

나지완

안치홍

김선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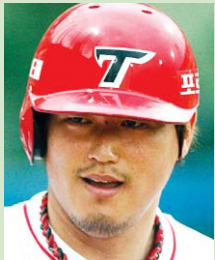
심동섭



4위로 가을잔치를 시작하게 됐지만 역시 원하는 결과는 우승이다. 실수 하지 않고 철저히 경기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고참으로서 중심을 잡고 정상을 노리겠다.



부상으로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웠다. 100% 완벽한 몸 상태가 아니라서 걱정도 되지만 꼭 포스트 시즌에 참가해 팀의 승리에 보탬이 되고 싶다.



부상으로 4번타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다시 팀에 돌아온 만큼 좋은 활약을 펼쳐 그동안의 부진을 만회하고 싶다. 최희섭으로 인해 팀이 승리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다.



부상으로 아쉬운 순간도 있었지만 시즌을 무사히 끝내고 포스트시즌을 치르게 됐다. 최선을 다해서 이기겠다는 목표밖에 없다. 이기는 야구를 해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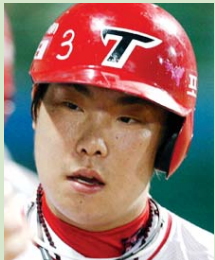
최고의 한 해를 보냈지만 아직 팀 우승이라는 목표가 남아 있다. 에이스라면 팀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좋은 역할을 해야 한다. 4관왕다운 활약으로 당당히 에이스라는 얘기를 들겠다.



2009년 수술을 했다. 재활을 끝내고 돌아와 다시 가을 잔치에 나서게 됐다. 어떤 보직을 맡게 되더라도 그 역할에 맞는 활약을 하기 위해 공 하나하나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 던지겠다.



팬들에게 무조건 이기겠다는 말을 하고 싶다. 플레이 하나 하나에 전력을 다해서 하겠다. 한 번이라도 더 뛰고 온몸을 다해 다이빙캐치를 하면서 승리를 거두겠다.



기다렸던 순간이고 무대다. 죽을 힘을 다해 그라운드에 오려겠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나비라는 별명이 있는데 ‘가을나비’가 되어 멋지게 비상하겠다.



준플레이오프 그리고 플레이오프 차근차근 올라가면 충분히 우승도 가능하다.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서 한국시리즈 무대를 밟겠다. 2011년의 가을을 우승으로 마무리하겠다.



2009년 엔트리에 들지 못해 KS에 출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시즌을 앞둔 기분이 남다르다. 너무 잘하겠다 는 생각보다는 내 역할을 한다는 생각으로 경기에 나서겠다.



처음으로 밟게 되는 큰 무대다.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된다. 특별한 각오 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것과 똑같이 생각하면서 공을 던지겠다. 평소의 모습처럼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프로야구 30년 타이거즈 30년

임창용 떠난 불펜 ‘동네북’ ... 5회까진 이기고 9회 가면 저

(50) 2005 시즌 KIA 창단 첫 끝씨

2005년 9월28일은 KIA 타이거즈가 창설 두산전서 2-7로 패해 2005 시즌 8위가 확정된 날이었다. 'V9의 명문구단 타이거즈'가 역사상 첫 끝씨의 수모를 당했다.

2005시즌 시즌 개막전까지만 해도 박재홍을 내주고 SK에서 김희걸을 영입해 마운드를 보강한다 리오스·존스·김진우·강철민 등에 대한 기대가 컸다. 타선에선 이원식·소소경을 내주고 보강한 홍현우·이

용규(LG)에 마해영·이종범·장성호·김종국·손지환·송산·심재학·이재주·홍세완 등이 버티고 있었다.

거기다 A급으로 평가받았던 좌정철·윤석민·이범석·최훈락 등 신인의 가세로 못해도 4강, 잘하면 우승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KIA는 시즌 초 8연패를 당하며 ‘동네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KIA는 시즌 통산 연승으로는 4연승 1회, 3연승 2회, 연패로는 8연

패 1회, 7연패 1회, 5연패 2회, 4연패 1회, 3연패 4회 등을 기록하며 연승보다는 연패와 친했다.

전력을 분석해 보면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불명예스러운 'KIA의 아킬레스건'인 마무리였다. 이는 특급 마무리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프랜차이즈 스타 '임창용 트레이드'의 저주'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될 것이다.

야구를 5회까지만 했다면 1위 팀은 KIA였을 것이다. 불행진의 난조는 6회까지 5~6점을 리드해도 불

안할 정도였고, 마무리 투수가 나오면 복대위인 한여름에도 모골이 송연해 더위가 가실 정도였다.

KIA 프런트는 시즌 중반 팬들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마무리 불안 때문에 제 승수를 챙기지 못하던 에이스이자 반 한국인이 된 '이오수' 리오스의 구위가 떨어졌다며 김주호를 묶어 전병두(두산)와 전격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그리고 더욱 부실해진 마운드로 연전연패를 거듭하자 책임이 가장 큰 프런트 수장은 그 책임을 시즌 중 유남호 감독 경질로 전가하는 미

봉책을 썼다. 설상가상으로 신임 서정환 감독은 '아심작'으로 영입해왔던 마해영과의 불화속에 마해영·최상덕·서동욱 대 장문석·한규식·손상정(LG)의 3대3 트레이드란 납득하기 어려운 카드로 내치면서 그 운을 시험해 보았으나 실패적으로 끝나고 말았다.



김재요

(조선이공대 교수·한국야구기록연구회장)

무등기 사회인 야구 4R 9일 용산 A구장서 열려

지왕리그 16강전

제1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열전의 무대가 계속된다.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무등기 사회인야구대회 4라운드 경기가 9일 북구 용산 A구장에서 펼쳐진다. 4주차 경기는 지왕리그의 16강전으로 전개된다.

오전 8시 시작되는 1경기에서 나이너스와 하리마호가 8강 진출 티켓을 다투고, 오전 10시에는 화이트 샷

크와 새한기업 재규어스가 맞붙는다.

에스컴 스카이와 액터스의 대결은 오후 12시 3번째 경기로 진행된다. 4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는 광주 레인보우와 승천 드래곤즈가 격돌한다.

앞서 진행된 3라운드까지 전황리 그 8강 진출팀이 모두 가려진 가운데 지왕리그의 8강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치열한 승부가 주말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아이나비 | 만도네비 | 모비스네비

- ▶ 거치형 본인 네비 매립 전차종 17만원 ⇒ 12만원
- ▶ 만도정품네비 매립(후방카메라+사크안테나+마감재) 57만원 ⇒ 45만원
- ▶ 아이나비 2D 매립+후방카메라+사크안테나+마감재 61만원 ⇒ 49만원
- ▶ 아이나비 3D 매립+후방카메라+사크안테나+마감재 65만원 ⇒ 53만원
- ▶ 트립형 매립차량은 상담후결정



블랙박스 | 후방카메라 | 사크안테나

만도 블랙박스 BN100

▶ 2채널 8기가 35만원 ⇒ 30만원



대한민국 대표 후방카메라 시그널 후방카메라



▶ 후방카메라 15만원 ⇒ 9만원부터

아이나비 클리어 Real HD 블랙박스

▶ 1채널 4기가 19만원 ⇒ 16만원

▶ 2채널 8기가 38만원 ⇒ 33만원

▶ Real HD 1채널 8기가 28만원 ⇒ 22만원

▶ 파워세이프 별도 2만원

▶ 1채널=전방카메라 ▶ 2채널=전방+후방카메라



▶ 사크안테나 10만원 ⇒ 6만원부터

도난경보기 | 이지카 | 스타트버튼

추가부품(음선) 차량은 금액이 추가될수 있음
 ※차량용 고급장수 2만원 상당 무료증정

- ▲ E25500 25만원
- ▲ E1 7만원
- ▲ E770B 40만원
- ▲ E7 37만원
- ▲ E7-S 43만원 / E7-B 51만원
- ▲ EZ620 10~14만원
- ▲ ET 17만원

한국카렌드 자동차용품 백화점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렌드가 하는 일
 - 루마넨팅, 3M코팅, 모비스넨팅
 -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클리닝, 허부언더코팅
 -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사크안테나
 - 자동차경비일체, 밧데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일타이어
 -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전국 최저가 판매
 ■ 국내최대 500평매장
 ■ 주차장 700평 주차객정 끝

